

임채영 목사의 참 믿음의 여정

2강 온전함의 통로 : 인내

지난주에 야고보서 수신자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고난 중에 있는 교회라고 소개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야고보가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고난과 핍박, 즉, 시험의 문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Move- 페이라스모이스(πειρασμοῖς)

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시험/페이라스모이스(πειρασμοῖς)’입니다. 특히 인간 밖에서 찾아오는 시험, 이것을 영어에서는 tria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찾아오는 역경이나 어려움으로서 겪어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라는 말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종류의 시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만나거든’의 우리말 번역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가정법으로 번역되면서, ‘혹시라도 시험을 만나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 가정법은 가정하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두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시험을 만난다면’이란 뜻이 아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이 갖는 오해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 시험과 역경은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던가요?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딘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허황한 보장을 하므로 들을 때는 즐겁지만 시련의 순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유사종교와는 구별됩니다. ‘우리 종교를 믿기만 하면 병도 고치고 사업의 성공도 보장된다’고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와는 다릅니다. 이 사실을 처음 들을 때는 여러분의 기대를 깨뜨릴지 모르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진짜 신앙은 시작됩니다. 신앙이란 사탕발림의 소식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인가요? 신앙의 유익은 다만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이 말을 직역해 보면 ‘큰 기쁨을 생각하라’ ‘크게 기뻐할 일이 곧 찾아올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시험이 오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기뻐하라고 하니 기뻐하자. 그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억지 기쁨을 강요당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려면 최소한 기쁨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Move- 도키미온(δοκίμιον)의 비밀

3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자,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시련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고 명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고 합니다.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앎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시험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시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인데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이 <도키미온>이라는 말은 ‘단련, 정련’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 시련이 오는가 하면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문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믿음은 있어요. 문제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별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인들도 인생의 어떤 한 때 어떤 삶의 장에서는 불신앙인처럼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당황하고 허둥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 삶으로 풀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도키미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입니다. 이 신앙이 순수하기는 한데, 아직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정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면서 비로소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쓸모 있는 신앙이 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인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처음 사랑이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쓸모 있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있는데, 그것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증’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요. 단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 도공들이 도자기를 구워 만들 때 먼저 진흙을 잘 빚어 불에 집어넣고 구운 다음 흠이 있는 것들은 깨버리고 잘 구워진 것들을 향해 도키모스! 곧 합격선언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prove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불 속에 들어간 도자기 중 쓸 만한 것과 쓰지 못할 버릴 것들이 구별되는 것처럼 시련이 오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인격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시험을 만나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

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시험이 오면 철저히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억울하다. 분노와 절망과 한숨과 억울함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한 많은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쏟아져 나오지요. 처음에는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한숨, 원망, 좌절, 억울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 고난의 순간에 신자들에게는 색다른 일이 일어나는데, 자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진정한 탄식과 절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에게 남아있던 것, 끝까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면 마치 금광석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는 금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광석이 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용광로 안에서 정련의 과정을 거쳐야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옵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이 원석과 같아요. 어떻게 이 원석들이 금이 되는가 하면 정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믿음 속에 교묘하게 섞여있던 인간의 부패하고 죄 된 요소들이 분리되고, 온전히 순전한 믿음만이 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의 시간은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성숙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Μογε-인내(ὀπιμονή)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내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서 솟아나서 그 어떤 시험이라도 견디게 합니다. 물론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통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라’는 말은 문법상 현재 명령법으로 ‘...하게 하라’는 뜻으로 진행 중인 행동을 계속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인내를 이루라고 했지만, 원래의 의미는 좀 달라요. NIV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인내로 하여금 그 일을 끝내도록 하라’주어가 인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이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보세요. 작고 불품없지만, 그 안에는 이미 정해진 유전자가 있어요. 곧 정해진 목적, 온전한 상태에 대한 그림과 계획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시간의 흐름에서 스스로 변화되면서, 꽃으로, 열매로, 그 모습을 완성해 갑니다. 그러므로 인내란 이런 생명의 시작과 완성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필연적인 무엇입니다.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함을 목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인내입니다. 나의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만들어 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인내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가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삼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온전함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 땅에서 가능한 일종의 ‘성숙’의 차원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함은 이 세상에서 완성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종말에 가서야 이를 수 있는 목표입니다. 아직은 온전함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Move- 하플로스(ἀπλῶς)

그래서 5절 상반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에서 ‘부족’은 4절 하반절에 나오는 ‘부족’과 연관이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인내의 목적인데, 지금의 모습은 온전하지 않아요. 부족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시험을 이기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거대한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5절 하반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후히’라는 말의 헬라어는 하플로스(ἀπλῶς) 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풍성하게, 주저 없이, 관대하게’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줄 때 넉넉히 주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순수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면서 속으로는 주고 싶지 않은 욕심이나 시기심을 품지 않은 단순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혜는 누가 구합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구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약점이지요. 분명히 약점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일관된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자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순종할 텐데 라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알고 싶으면 나에게 물어보라! 기쁘게 응답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싶은 소원을 갖지 못해서 모릅니다. 정말 알기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기쁘게 대답하시려고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묻는 것이 기특해서 ‘기쁘게 대답해 주실 분’이라고 풀어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Move- 디아크리노(διακρίνω)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비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6-8절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의심하거든요. 여기에서 의심한다는 말은 조금 번역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의심한다고 하니까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전혀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할 때, 전혀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벽에다 붙여놓고, 마음의 의심을 없애고, 그대로 받을 줄 확신하면서 의심하지 않으면 자기가 바라던 바를 얻게 된다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의심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디아크리노($\delta\iota\alpha\kappa\rho\iota\nu\omega$)는 '디아'(사이에')와 '크리노'(분리시키다)의 합성어로서 어떤 문제에 대해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심리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분리된 상태 즉 마음 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자기의 방법대로, 욕심을 따라 얻고자 하면서,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달라고 하는 이중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나뉜 마음, 결국은 8절에 나오는 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플로스, 즉 녉 녉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의심을 품고 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갈릴리 바다의 풍경을 묘사한 건데요. 기후 변동이 심한 갈릴리바다에서는 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는 북서풍이고, 다른 하나는 남서풍입니다. 북서풍이 불면 파도는 엄청난 기세로 남동쪽으로 떠밀려갔다가, 갑자기 남동풍이 불어오면 북서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러면 요동합니다. 무언가 움직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제자리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요동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흔들리는 마음으로써의 두 마음'과 '정한 마음'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으로써의 두 마음'과 '성결한 마음'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처럼 된 타락한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지키라'고 하셨음에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자기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어 '하라, 하지 말라'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정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결국은 욕심입니다. 이 욕심에 물들어 돌로 나뉜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택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파의 거친 모습에 겁을 먹은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유혹하면서, 이간질을 합니다. 혹시 우리도 여기에 넘어가서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원하는 것은 얻었습니다. 문제는 얻었음에도 행복하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환경은 풍요로워졌는데, 신앙은 더 쇠락해 갑니다. 한마음으로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 한마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한마음이란 우리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한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시편에서 쓴 표현들은 세상 사람들이 좀처럼 쓰지 않고, 쓰지 못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그중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그 백미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살 수 있게 했던 것일까요?

바울입니다. 빌4:11-12절을 보세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비천에 천하든지 풍부하든지, 환경과는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그 근거를 그 다음절 13절에서 소개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근거는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도 한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한마음입니다.

정치적으로 왕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을까요? 돈이 많아서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다윗의 시편 23편 1절이 달라졌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내가 왕이 되어 날아가는 새도 떨어트릴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고 보니'라던가, 아니면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고 보니'라고 써야 옳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시편 23편 1절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더라' '나의 삶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있는 것 같이 늘 풍족하고 평안해지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도 겁 안 나더라' '언제나 가보면 좋은 길이더라, 옳은 길이더라' '삶의 잔이 언제나 넘치더라'는 것이 다윗의 시편 23편입니다.